

BMW CEO 만난 이재용 “배터리 동맹 강화”

(삼성전자 회장)

삼성SDI 배터리 주행거리 극대화
뉴 i7 등 최신 전기차에 ‘P5’ 탑재
13년째 긴밀 협력, 파트너십 확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BMW 경영진을 만나 전기차 배터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17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올리버 집세 최고경영자(CEO) 등 BMW 경영진들과 만났다.

● ‘P5’ 배터리 적용 확대

이 회장과 올리버 집세 CEO는 BMW 최신 전기차에 탑재되는 삼성SDI의 ‘P5’ 배터리를 포함해 양사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최윤호 삼성SDI 사장, 장·필립 파랑 BMW 수석 부사장, 한상윤 BMW코리아 사장 등도 배석했다.

이 회장은 BMW 경영진 미팅에 앞서 P5 배터리셀이 적용된 BMW의 최신 플래그십 전기차 ‘뉴 i7’과 BMW 드라이빙 센터를 살펴봤다. P5 배터리는 전기차 주행거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삼성SDI의 최첨단 소재 기술을 집대성한 제품이다. 기존 전기차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는 20% 높이고 재료비는 20% 이상 절감한 것이 특징이다.

니켈 함량 88% 이상인 ‘하이니켈’ 양극재와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해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했다. BMW는 차량 성능 향상을 위해 뉴 i7 외에 iX, i4 등 최신 전기차 기종에도 P5 배터리셀을 적용했다.

이 회장은 “BMW와 함께 할 수 있어



BMW의 최신 전기차 ‘뉴 i7’을 살펴보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과 올리버 집세 BMW 최고경영자(CEO).

사진제공 | 삼성전자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사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올리버 집세 회장은 “전동화에 있어 삼성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다”며 “삼성 경영진이 우리의 최신 기술력이 집약된 새로운 BMW i7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상정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 이 회장이 협력 주도

삼성은 BMW와 13년 동안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왔다. 양사는 2009년 전기

차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전기차용 배터리 중심의 협력을 시작했다. 특히 이 회장은 협력 초기 단계부터 BMW 경영진과 교류하며 신뢰 관계를 구축해 양사 간 전기차 협력 강화를 주도했다.

삼성과 BMW는 이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전기차를 지속적으로 탄생시키며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앞당겨 왔다. 2013년 출시된 BMW 최초의 순수 전기차 i3를 시작으로, i8(2015년), iX·i4(2021년) 등 BMW가

출시하는 친환경 전기차에는 삼성SDI의 고성능 배터리가 탑재되고 있다. 2014년에는 단순 배터리 공급을 넘어, 차세대 소재 등 전기차 기술 공동 개발까지 협력을 확대했다.

삼성SDI는 2019년 BMW와 자동차 전지 공급을 위한 약 4조 원 규모의 장기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기차 시장 성장과 BMW 차량 판매 호조에 따라 양사는 공급 규모를 3배 이상 확대 중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KT, 사고 방지 ‘지능형 퍼스널 모빌리티’ 제주도서 실증

마이크로웍스·지바이크 등과 협약
위험상황 자동 감속, 불법주차 감지
내년 1월부터 3개월 가량 실증 진행

KT는 제주도, 마이크로웍스, 지바이크와 함께 ‘지능형 퍼스널 모빌리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능형사물인터넷(AIoT)을 탑재한 지능형 퍼스널 모빌리티와 이를 통합 관제하는 플랫폼을 개발해 제주도에서 실증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근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같은 공유 모빌리티가 도심 속 주요 이동 수단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탑승자 안전과 기기 방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능형 퍼스널 모빌리티에는 탑승자의 안전을 보



이영준 KT 총남충북법인고객본부장, 김성하 지바이크 CFO(이사), 이상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 김용남 마이크로웍스 대표.(왼쪽부터)

사진제공 | KT

완하기 위해 2개의 카메라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이 탑재된다. 여기에 영상 인공지능이 더해져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사고 발생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보행자 추돌, 차량 근접과 같은 위험 상황이 발생하려 할 때 모빌리티를 자동으로 감속하거나 정지시키는 것이다. 반납 시에는 AIOT가 주차 지역의 소화전이

나 횡단보도 등을 인식해 사용자가 올바른 반납 장소에 기기를 바르게 세워 뒀는지 판단한다. 불법주차 여부에 따라 사용자에게 페널티와 리워드도 부과할 수 있다.

KT는 클라우드와 IoT 통신 회선을 제공한다. 마이크로웍스는 모빌리티용 AIOT 관제 디바이스와 영상 관제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바이크는 AIOT가 탑재되는 전동 킥보드를 자체 제작한다. 제주도는 기술 실증 무대에서 실증 정보 분석과 기존 대중교통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실증은 제주시에서 내년 1월부터 3개월 가량 진행 예정이다. 테스트로 직원과 거주민, 관광객들을 교루 섭외해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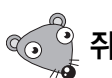
LGU+, 업계 첫 준법경영시스템 ISO37301 인증

LG유플러스는 국내 통신 3사 최초로 준법경영시스템에 대한 ‘ISO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정보보안(ISO27001), 환경경영(ISO14001), 안전보건(ISO45001)에 이어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도 국제적 공인을 획득하면서 ESG 경영 기조를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번 인증은 글로벌 인증 전문기관 BSI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LG유플러스는 심사를 통해 전기통신사업, 공정거래, 정보보호, 안전보건, 인사노무, 반부패, 지식재산권, 기업지배구조 등 총 8개 부문에 대한 준법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2월 19일 (월) 음력: 11월 26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만사가 행통하는 윤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다소 소극적이라고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모든 일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를 입기 쉬운 때이므로 특히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땅 속의 씨가 싹이 터서 따뜻한 태양의 열로 잘 자라 이윽고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모든 운세가 나아지기 시작하는 때이다. 어린 싹은 봄이란 계절과 강렬한 생명력과 풍부한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견실하게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취업시험 합격과 먼 곳과의 거래성사가 있는 날이다.	성실함이 있어야 크게 길하다. 허물이 없고 마음을 바르고 끈게 가져야 한다. 아무 이득도 없는 일을, 주위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관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질적으로는 손해지만 나중에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쥐피와 상의하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처음은 우여곡절이 있겠으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된다.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서 협력을 구하라.	사방이 위험으로 막혀있다. 합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덕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의 정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 음주가무를 피하라.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무슨 일이나 자신감이 충만하여 실수하기 좋은 날이다. 좌충우돌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는 수가 많다. 애매한 전망으로 일을 시작하다보면 반드시 중도에 좌절하게 될 것이다. 신중한 자세만이 앞날을 밝게 할 것이다.	민동산에 심어진 묘목들이 점차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운산을 초목으로 덮는 것처럼 점진적 발전을 할 때이다. 서서히 나아가는 것이다. 급격한 성장은 비할 수 없으나 착실하게 순리를 따라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매사 꼼꼼히 살펴라.	감정 제어가 잘 되지 않는 날이다. 매사 일희일비 하다보면 사기를 당하거나 재난을 만날 수 있는 날이다. 진행 중인 일에 골치가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교제비를 많이 쓸 수도 있다. 천천히 정성리보다 자신만 상처 입는 날이다. 돼지피가 귀인이다.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지출이 많을 때이니 되도록이면 저축에 힘써라. 너무 밀고 나가면 상대가 움츠러든다. 괜히 성질부리다 자신만 상처 입는 날이다. 돼지피가 귀인이다.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합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덕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갈 기다려야 한다. 윤이 막혔으니 바라지 말라.	무슨 일에 있어서는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한 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버리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